

# 캄보디아 MISSION LETTER

JESUS VISION CENTER 이야기

## 센터 건축을 향한 첫 걸음 - 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신탁 계약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사무엘하 7장 13절)

이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려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018년 3월 2일 캄보디아 땅을 밟은 이후로 지금까지 만 8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9년째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센터 건축을 향한 첫 걸음을 이제야 뚫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의 시간, 때로는 너무나 답답했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오자마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람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센터 건축을 향한 첫 걸음(신탁회사와의 계약)을 떼게 된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편지에는 사진은 별로 없고 글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모쪼록 저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시고 동역자님들 또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함께하는교회 -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2023년 초, 함께하는교회를 담임하는 친구 우정년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마다 교인들과 함께 단기선교를 다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역하는 곳으로 단기선교를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지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방문하는 단기선교팀인지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단기선교를 오는 팀이나 맞이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단기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총만하여 단기선교팀을 섬기는 동안 몇 시간 잠을 못 자도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총만했습니다. 물론 마을 아이들도 모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단기선교팀이 다녀간 이후로 몇 달 동안이나 함께하는교회 단기선교팀이 언제 또 오냐고 저를 볼 때마다 물어봐서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기선교팀이 다녀가고 몇 달 후, 친구 우정년 목사로부터 다시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님 교회에서 제 사역지에 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헌금을 모았다며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하는교회는 포천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상가건물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한 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텐트를 치고 살다가 추운 겨울 연탄 가스를 마시기도 하고, 교회를 옮겨야 할 상황에서 많지 않은 교우들과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라 갈 곳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치원 건물을 인수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 유치원 건물을 인수할 때에도 인수자금 대부분이 빚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억 원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제 사역지의 선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교우들이 헌금했다며 20,609,436원을 보내왔습니다. 순간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1장 1절~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가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빛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헌금을 해준 함께하는교회 모든 교우들과 친구 우정년 목사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최주열 선교헌금 - 피로 사신 교회

2023년에 포천 함께하는교회 단기선교팀이 다녀간 후로 몇 달 동안 아이들로부터 시달렸다는 얘기를 들은 우정년 목사가 2024년에도 단기선교팀을 이끌고 다시 방문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선교지를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을 아이들이 또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를 듣고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선교팀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울린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우정년 목사를 통해 전달받은 선교헌금에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선교헌금을 주신 무학교회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별세하셨는데, 사고를 낸 사람이 택배일을 하며 힘들게 사는 걸 아시고는 아무런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의상 아무런 보상을 안 할 수 없다고 해 100만원을 받으셨고, 그것을 의미 있는 일에 쓰시고자 우 목사를 통해 선교센터 부지 매입에 써달라고 별세하신 남편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하신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찌뼌플루어 마을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너무나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교헌금을 해 주신 권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하나님의 스토리 - 선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

언어 연수가 끝나고 1년 여 가까이 차를 타고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역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 드디어 사역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한편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없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역을 고민했고 1주일에 두세 번 사역지를 방문하며 마스크와 알코올, 의약품 등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놓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1년 뒤인 2022년 첫번째 주일부터는 마을 아이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 년 을 지나오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속히 선교센터가 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센터가 건축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많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다고 혹은 교육을 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도대체 언제쯤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시려나 답답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선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헌금은 한 권사님으로부터였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졌는데,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2022년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받은 돈 500만원을 선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헌금하셨습니다. 함께하는교회가 20,609,436원을 헌금해주었고, 무학교회의 권사님이 별세하신 남편의 이름으로 100만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문화와선교연구소 사역을 함께하는 교단 선교사님을 통해 알게 된 신산교회에서 저희가 야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500만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오래 전 고척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조영춘 목사님이 호계교회 단기선교팀과 함께 방문하셨었는데, 교회에서 저희의 사역에 대해 나누었더니 문희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500만원을 헌금하셨다며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 즈음 사역지를 정하고 사역 플랜을 그리고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자재 마련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하셨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컴퓨터 교육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이 헌금을 선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쓰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동안 마땅한 건물 없이 노지에서 예배 드리고 교육하는 동생이 안타까웠는지 누님과 매형이 필요한 곳에 쓰라며 각각 1,000만원씩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헌금이 총 66,609,436원이 모였습니다. 이로써 토지매입금과 신탁비용 그리고 복토까지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의 하나님의 스토리 - 선교센터 부지 매입 절차



이 달 초 등기가 나오고 신탁회사를 방문하여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3만불짜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견적을 \$6,029를 받아왔습니다. 부동산 실사 비용, 신탁 수수료, 신탁 자산 등록비, 토지 이전 서비스 수수료, 신탁 SPA 초안 수수료, 양도세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추후에 지적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이는 토지국 공무원이 확인 후 결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미팅 후 필요한 서류는 신탁회사에 보냈고 다음 주에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부동산 매입 절차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신탁감독총국에 등록하여 신탁증서를 발급받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게 됩니다. 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신탁감독총국에서 최종 결제권자가 장관인데 장관 일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건축에 필요한 비용도 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나의 스토리 - 지난 8년의 감사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한 바가지나 흘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경험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순간들, 마음 아픈 순간들, 그로 인해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이 다 감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생활비(총회 기준인 \$2100)를 지원해 주신 파송교회 대치동교회와 그 동안 저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협력 교회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며 지금의 공동체를 이루어 준 마을 아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앞드려 감사드립니다.

## 사역 이모저모

점씩플루어 마을과 틀록영끄롱 마을의 주일예배, 각 마을과 뜨러삐앙로까 초·중학교에서의 한국어·영어 교육, 뜨러삐앙로까 초·중학교 건물 한 동 외관 페인팅 지원, 매월 한번씩 모바일 클리닉 지원 등 사역들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한 이어지는 기도제목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 01 캄보디아를 위해

- \* 지난해 12월 말 태국과의 전쟁은 그쳤지만 여전히 국경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 너머로 들어와 있는 태국 군이 물러가고 여전히 난민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 \*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국경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고 영구적인 평화 협정이 속히 맺어지게 하소서.
- \*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나라로 상당한 물류가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태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한국보다 비싸져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 02 찰벡플루어 마을 사역을 위해

- \* 어려서 부터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벌써부터 꿈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권인 꿈을 찾게 하소서.
- \*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아이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체험하므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 03 뜨러삐앙로까 마을 사역을 위해

- \* 지난 분기에는 뜨러삐앙로까 초·중학교 건물 3동 가운데 한 동의 외벽 페인트를 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소서.
- \* 뜨러삐앙로까 초·중학교의 교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며 열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참된 교사가 되게 하소서.
- \* 뜨러삐앙로까 초·중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 04 틀룩엉끄롱 마을 사역을 위해

- \* 1단계 성경공부를 하는 8명의 아이들과 2단계 성경공부를 하는 7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소서.
- \*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줄 수 있게 하소서.
- \* 아이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 05 문화와선교연구소를 위해

- \* 2026년 문화와선교연구소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수 있는 사역을 해 나가게 하소서.
- \* 연구소 사역에 함께할 한국 내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책을 출판하고 사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 06 가족을 위해

- \* 저와 아내 유소영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 \* 아들 예원이가 2학년이 되어 전공 수업을 듣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수업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섬기는 대학교회 찬양팀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 딸 예술이가 4월 4일에 검정고시를 봅니다. 전과목 만점을 맞고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빠와 같이 한동대학교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입시 준비를 잘 하게 하소서.